



나에게 원자력발전소는?

박인섭
대우건설(주) 차장



1993년 경주 월성원자력 3,4호기 건설현장으로 발령받고 현장으로 도착할 때는 막 본관 굴착이 끝나는 무렵이었다.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온종일 지나다 보면 페이퍼 작업(현황 보고서, 작업일보 등)은 언제나 야간에 하였고 퇴근은 항상 깜깜한 밤중이었다.

다음날 공정 진행률로 업무의 성과가 결정되고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의 연속이 회사 초년생이 나에게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선배들의 격려와 배려로 지내온 것 같다.

월성 4호기 원자로 외벽 축조 공사는 전 세계 중수로형 원전 건설 공사 중에서 최단 시일 내 완성하는 세계 기록을 세웠다. 외벽을 SLIPFORM으로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철근 가공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밤낮없이 진행되었는데, 17일 동안 레미콘 7,000M3, 철근 1,200Ton, 작업 인원 10,500명이 투입되어 현장 직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아무런 사고도 없이 마쳤을 때는 전우애는 아니지만 가슴 찡한 동료애가 일어났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이 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국민의 입에서 오르내릴 때쯤 주변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소가 왜 필요하냐고 핀잔을 줄 때 오히려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변론하며 싸운 적도 있다.

사실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한다.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술력은 플랜트 공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동안 월성 원자력3,4호기를 준공하였고 신월성 1호기를 준공하였다. 그렇게 20년이 넘게 원전 건설 현장에 있으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나에게 행복한 시절이었고 자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 원자력발전소는 사회 첫발을 디딘 곳이고 아직도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다. 돌아켜보면 그동안 많은 인생의 이정표를 지나왔지만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나이 오십이 되어 이제 알 것 같다.

옛말에 나이 오십을 지천명이라 했던가? 지나온 과거를 거울삼아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옛말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다.

지금까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에 고마워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아울러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20년이 넘게 원전 건설 현장에 있으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나에게 행복한 시절이었고 자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한다.

노고를 아끼지 않는 수많은 선후배에게 이상을 함께 나누며, 나에게 영광스러움을 안겨주신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관계자와 원자력 종사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공사를 마치고

최병전

두산중공업(주) 원자력서비스사업관리2팀 부장



2014년 5월 20일 저녁 무렵,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공사 현장사무소 안에서는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모두들 나가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한울 3호기 2번 증기발생기의 원자로냉각재 배관 용접부에 대한 열처리 전 비파괴검사 결과였으며, 저녁식사 시간을 1시간여 넘긴 후 비파괴검사팀으로부터 3개 배관 모두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고 모두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물론 이것으로 용접부의 건전